
2025년 3/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 보고서

2025. 6.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

|| 목 차 ||

I. 조사개요	1
1. 조사목적	1
2. 조사대상 기간	1
3. 조사실시 기간	1
4. 조사대상	1
5. 조사방법	1
6. 조사항목	1
7. 집계방법	1
8. 기업경기실사지수 작성방법	1
II. 2025년 3/4분기 기업경기전망	2
1. 종합 경기전망	2
2. 응답업체 분포	3
3. 항목별 경기전망	4
4. 업종별 경기전망	4
5. 규모별 경기전망	5
6. 매출유형별 경기전망	6
7. 지역별 경기전망	6
8. 올해 상반기 매출액과 투자실적 목표 달성 수준	7
9. 상반기 대내외 리스크	8

I

조사 개요

1. 조사목적

- 전북지역 제조업체의 2025년 3/4분기 기업경기전망을 조사·분석하여 기업의 경영계획 및 정부의 경기대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데 있음.

2. 조사대상 기간

- 2025년 2/4분기(4, 5, 6월) - 실적기간
- 2025년 3/4분기(7, 8, 9월) -전망기간

3. 조사실시 기간

- 2025년 5월 30일 ~ 2025년 6월 12일

4. 조사대상

- 전북지역 4개상의(전주, 익산, 군산, 전북서남)관할 제조업체 중 무작위 표본 추출에 의거 111개 업체로부터 회수

5.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팩스 및 이메일 조사함.

6. 조사항목

- 종합 경기전망 ○ 규모별 경기전망 ○ 업종별 경기전망
- 매출유형별 경기전망 ○ 지역별 경기전망 ○ 기타 경제상황

7. 집계방법

- 회수된 조사표를 업종별(전북특자도 제조업체의 주요업종인 8개 업종), 매출 유형별(수출, 내수기업), 지역별(전주, 익산, 군산, 전북서남)로 분류한 후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집계·처리하였음.

8. 기업경기실사지수 작성방법

- 조사대상업체가 분기별로 느끼는 체감경기를 각각 전분기와 대비하여 호전(상승, 증가), 악화(하락, 감소), 불변(보합)으로 표시하게 한 후 이를 지수화함
- 기업경기 실사지수는 다음 식에 의하여 작성되었음.

$$\text{기업경기실사지수 (B.S.I)} = \frac{\text{호전표시 업체수} - \text{악화표시 업체수}}{\text{총 유효응답 업체수}} \times 100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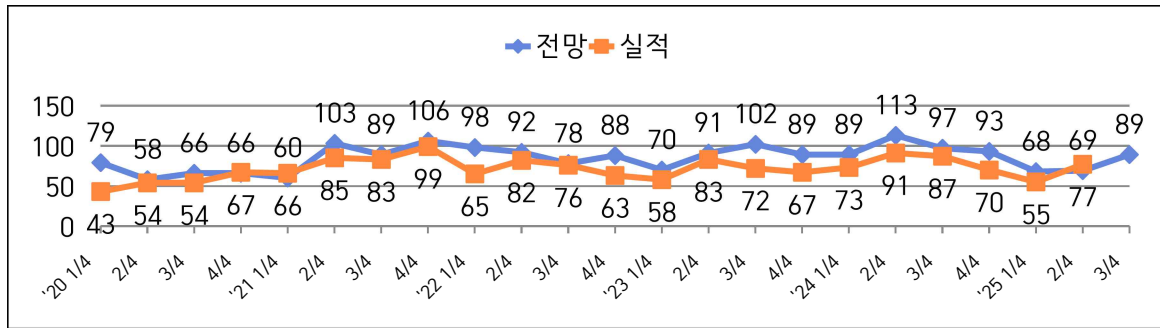
$$\text{BSI} = \text{Business Survey Index}$$
$$0 \leq \text{BSI} \leq 200$$

1. 종합 경기전망

2025년 3/4분기 제조업체 BSI ‘89’
5분기 연속 부진 속, 새 정부 경기부양 기대감에 긍정적 신호 감지

- 전북지역 제조업체들은 지난해 12.3 계엄사태 이후의 극심한 경제 불확실성을 벗어나 오는 3/4분기에는 다소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음.
- 전주를 비롯한 익산, 군산, 전북서남상공회의소의 협의체인 전북상공회의소 협의회가 도내 제조업체 11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3/4분기 기업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기업경기전망지수(Business Survey Index, BSI)는 ‘89’로 집계됨.
- 이처럼 1/4분기와 2/4분기의 BSI 전망치인 68, 69에 비해 다소 높은 전망치가 나온 것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 해소와 경기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해석됨.
- 그러나 대내외 복합 리스크가 여전히 기업 활동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대내적으로는 고물가의 지속과 소비 위축으로 인해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동 전쟁, 미·중 갈등 심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수출과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기업들은 신기술 개발, 원가 절감, 수출시장 다변화 등으로 자체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정책 당국은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예산 조기 집행, 추가경정예산 편성, 대외 통상협상 전략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경기 회복의 기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됨.

【 전북특별자치도 제조업 BSI 추이 】



【 전북특별자치도 제조업 BSI 추이 】

(단위 : BSI, 전분기대비)

분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전망치	79	58	66	66	60	103	89	106	98	92	78	88	70	91	102	89	89	113	97	93	68	69	89
실적치	43	54	54	67	66	85	83	99	65	82	76	63	58	83	72	67	73	91	87	70	55	77	

2. 응답업체 분포

- 응답업체 분포를 보면 3/4분기 경기가 전 분기보다 ‘호전될 것’ 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26.4%(29개사)로, 전 분기 19.0%(23개사) 대비 7.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비슷할 것’ 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36.4%(40개사)로 전 분기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며, 반면 ‘악화될 것’ 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37.3%(41개사)로 전 분기 49.6%(60개사) 대비 12.3%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기업들은 여전히 경기 전반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새 정부의 정책 추진 기대감과 국내 정치 불확실성 해소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경기 악화보다는 유지 또는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점차 확산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업체 분포현황 】

구 분	2025년 2/4분기 전망	2025년 3/4분기 전망
호 전	19.0%(23개사)	26.4%(29개사)
비 슷	31.4%(38개사)	36.4%(40개사)
악 화	49.6%(60개사)	37.3%(41개사)
계	100.0%(121개사)	100.0%(110개사)

※ ()는 응답업체 수

3. 항목별 경기전망

□ 항목별 경기전망을 살펴보면 매출액(92), 영업이익(82), 설비투자(91), 자금사정(67) 등 모든 항목의 전망지수가 기준치인 100을 하회하고 있어 3분기에도 경기 회복은 제한적이며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다만, 전 분기 대비 대부분의 지표가 소폭 상승함에 따라 점진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됨.

□ 특히 자금사정 BSI는 ‘67’로 주요 항목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에 여전히 큰 어려움이 존재함을 보여줌. 이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 기업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등 자금 흐름이 여전히 경직된 상태임을 시사함.

【 2025년 3/4분기 항목별 BSI 】

(단위 : BSI, 전분기대비실적)

구 분	매 출 액	영업이익	설비투자	자금사정
BSI	92 (81)	82 (77)	91 (90)	67 (63)

※ ()는 지난 2/4분기 BSI 실적 수치

4. 업종별 경기전망

□ 업종별 경기전망을 살펴보면, 자동차부품(108)과 바이오농식품(104)은 3분기 경기 전망이 기준치인 100을 상회하며 경기가 ‘호전’ 될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전기전자(86), 화학(70), 비금속(67), 섬유 의복(57) 업종은 모두 기준치 이하로 경기가 ‘악화’ 될 것으로 전망함.

【 2025년 3/4분기 업종별 BSI 】

(단위 : BSI, 전분기대비실적)

구 분	바이오농식품	섬유 의복	화학	비금속	금속기계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기 타
BSI	104 (85)	57 (29)	70 (70)	67 (44)	100 (94)	86 (43)	108 (108)	88 (88)

※ ()는 지난 2/4분기 BSI 실적 수치

- 자동차부품(108) 업종은 완성차 업체의 생산 증가에 따른 납품량 증가와 신흥국 수출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부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경기가 ‘호전’ 될 것으로 전망함.
- 바이오농식품(104) 업종은 수출 물량 증가와 신규 계약 체결, 명절을 앞둔 생산 계획 및 계절적 수요 확대에 힘입어 전반적인 매출 증가가 기대되며 경기 전망이 ‘호전’ 될 것으로 예상함.
- 비금속(67) 업종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 공사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수주가 위축되고, 수주액 감소와 생산 및 매출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어 전반적인 경기 부진이 전망됨.
- 섬유·의복(57) 업종은 국내 소비심리 위축과 생산 원가 상승, 해외 수요 부진에 따른 수출 물량과 매출 감소가 예상되며, 가장 낮은 경기 전망치를 기록해 경기 전망이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됨.

5. 규모별 경기전망

- 규모별 기업경기전망 조사 결과, 대·중견기업(95)과 중소기업(88) 모두 기준치(100)를 하회해 본격적인 경기 회복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남. 다만, 중소기업에 비해 대·중견기업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대·중견기업의 전망치는 전 분기 대비 2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 2025년 3/4분기 규모별 BSI 】

(단위 : BSI, 전분기대비실적)

구 분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BSI	95 (67)	88 (80)

※ ()는 지난 2/4분기 BSI 실적 수치

6. 매출유형별 경기전망

- 도내 수출기업의 경기전망은 전 분기 대비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상호 관세 문제,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란-이스라엘 간 중동 전쟁 등 다양한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함에 따라 기준치(100)를 하회하며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함.
- 내수기업(88)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장기화된 내수 부진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매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 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2025년 3/4분기 매출유형별 BSI 】

(단위 : BSI, 전분기대비실적)

구 분	수출기업	내수기업
BSI	95 (63)	88 (80)

※ ()는 지난 2/4분기 BSI 실적 수치

7. 지역별 경기전망

- 지역별 경기 전망을 살펴보면, 전북서남권(105)만이 기준치(100)를 상회하며 3분기 경기 전망이 ‘호전’ 될 것으로 예상된 반면, 군산(91), 전주(86), 익산(80) 지역은 기준치를 밑돌아 경기가 ‘악화’ 될 것으로 전망됨.
- 전북서남권의 경기 전망치가 높게 나타난 것은 바이오·농식품 업종의 신규 계약 체결, 명절을 앞둔 계절적 요인에 따른 수요 증가,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됨.
- 익산(80) 지역은 섬유·의복 및 화학 업종에서 국내외 수요 감소로 인한 수출 물량 축소와 내수 부진, 비금속 업종의 건설 수주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됨. 아울러, 인건비 상승과 고금리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까지 더해지며, 기업의 수익성 저하와 자금 사정 악화가 경기 전망에 부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남.

【 2025년 3/4분기 지역별 BSI 】

(단위 : BSI, 전분기대비실적)

구 분	전 주	익 산	군 산	전북서남
BSI	86 (82)	80 (55)	91 (90)	105 (79)

※ ()는 지난 2/4분기 BSI 실적 수치

8. 올해 상반기 매출액과 투자실적 목표 달성 수준

- 2025년 상반기 전북 지역 기업들의 매출 목표 달성 수준을 살펴본 결과, 전체의 60.3%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40.5%는 ‘소폭 하향’, 19.8%는 ‘크게 하향’ 한 것으로 조사됨. 반면, 25.2%는 ‘목표치 수준’, 14.4%는 ‘소폭 상향’ 했다고 응답하였으며 ‘크게 상향’ 했다는 응답은 없었음.

【 올해 상반기 매출액 목표 달성 수준 】

구 분	크게 하향	소폭 하향 (10% 이내)	목표치 수준	소폭 상향 (10% 이내)	크게 상향	총 계
비율(%)	19.8	40.5	25.2	14.4	-	100.0

- 투자실적 목표 달성 수준은 전체의 절반인 50.0%가 목표에 미달한 것으로 응답되었으며, 이 중 39.4%는 ‘소폭 하향’, 10.6%는 ‘크게 하향’ 한 것으로 집계됨. 한편, 37.5%는 ‘목표치 수준’ 을 달성했으며, 10.6%는 ‘소폭 상향’, 1.9%는 ‘크게 상향’ 했다고 응답함.

【 올해 상반기 투자실적 목표 달성 수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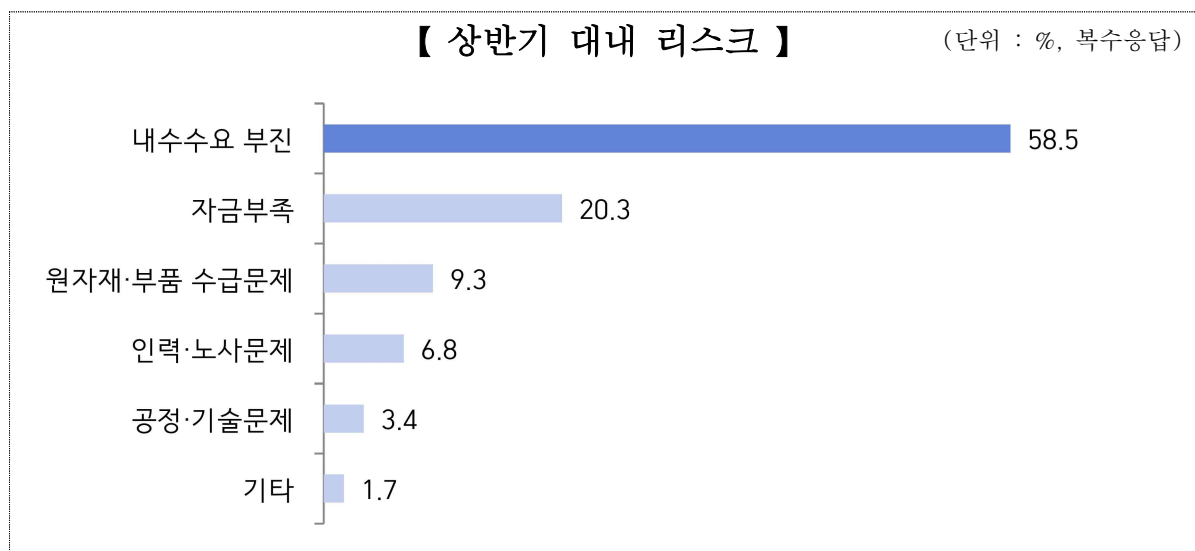
구 분	크게 하향	소폭 하향 (10% 이내)	목표치 수준	소폭 상향 (10% 이내)	크게 상향	총 계
비율(%)	10.6	39.4	37.5	10.6	1.9	100.0

- 2025년 매출액과 투자실적 목표 달성 수준 조사 결과, 상당수 기업이 매출 및 투자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반적인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음을 시사함. 주요 원인으로서는 내수 부진, 자금 조달 환경 악화, 수출 둔화 등 복합적인 대내외 리스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됨.

9. 상반기 대내외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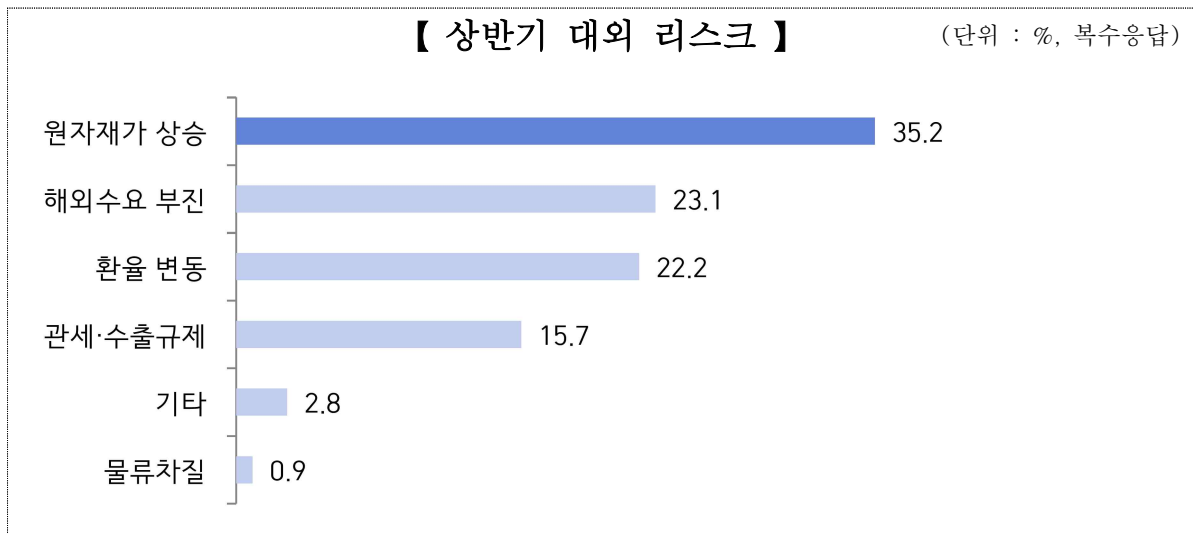
가. 상반기 대내 리스크

- 상반기 기업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대내 리스크로는 ‘내수수요 부진’이 5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자금 부족’ (20.3%), ‘원자재·부품 수급 차질’ (9.3%), ‘인력·노사 문제’ (6.8%), ‘공정·기술 문제’ (3.4%), ‘기타’ (1.7%) 순으로 조사됨.
- 이는 장기화된 내수 침체로 인해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기업 매출과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인력 및 노사 이슈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됨.
- 이에 따라 내수 경기의 조속한 회복과 함께, 금융·자금 지원 확대, 공급망 안정화, 노동시장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이 시급한 상황임.



나. 상반기 대외 리스크

- 기업들은 2025년 상반기 사업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대외 리스크로는 ‘원자재가 상승’이 3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해외 수요 부진’ (23.1%), ‘환율 변동’ (22.2%), ‘관세·수출 규제’ (15.7%), ‘기타’ (2.8%), ‘물류 차질’ (0.9%) 순으로 나타남.
-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과 환율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이에 따른 해외 수요 감소, 수출 둔화, 무역 장벽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와 시장 대응에 상당한 부담을 준 것으로 해석됨.



- 업종별로 살펴본 상반기 대내 리스크에서는 모든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내수수요 부진’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으며, 바이오농식품, 화학, 비금속, 기타 제조업에서는 해당 응답 비율이 60%를 넘어 내수 침체에 대한 체감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한편,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는 업종별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자동차부품 업종에서는 ‘인력·노사 문제’가 25.0%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나 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노사 갈등이 주요한 경영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업종별 상반기 대내 리스크 】

(단위 : %)

구 분	내수수요 부진	자금부족	원자재·부품 수급문제	인력·노사 문제	공정·기술 문제	기타
바이오농식품	66.7	11.1	11.1	3.7	3.7	3.7
섬유의복	55.6	33.3	-	11.1	-	-
화학	65.0	15.0	15.0	-	5.0	-
비금속	62.5	25.0	12.5	-	-	-
금속기계	57.1	28.6	9.5	-	4.8	-
전기전자	44.4	22.2	22.2	11.1	-	-
자동차부품	43.8	25.0	-	25.0	6.3	-
기타	62.5	12.5	-	12.5	-	12.5

□ 업종별 상반기 대외 리스크를 살펴본 결과,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해외 수요 부진, 환율 변동 등이 사업 실적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남.

□ 아울러 업종별 특성에 따라 대외 리스크의 유형과 체감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나 업종별 맞춤형 수출 지원 정책과 리스크 관리 대책 마련이 요구됨.

【 업종별 상반기 대외 리스크 】

(단위 : %)

구 분	해외수요 부진	환율 변동	관세·수출 규제	물류차질	원자재가 상승	기타
바이오농식품	8.0	40.0	-	-	48.0	4.0
섬유의복	57.1	-	28.6	-	14.3	-
화학	19.0	19.0	23.8	4.8	28.6	4.8
비금속	-	33.3	-	-	50.0	16.7
금속기계	33.3	22.2	22.2	-	22.2	-
전기전자	33.3	22.2	11.1	-	33.3	-
자동차부품	25.0	12.5	31.3	-	31.3	-
기타	33.3	-	-	-	66.7	-